

음대생들의 희망직업과 진로 자기효능감 조사

주 희 선*

본 연구의 목적은 음대생들의 희망직업과 진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여 음대생들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DMSE-SF)를 사용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희망직업, 전공, 학년에 따라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음대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높은 비율 순으로 연주자, 음악교사, 악단단원, 음악감독, 음악 관련직, 비음악 관련직, 레슨교사로 나타났다. 진로 자기효능감 전체의 평균은 희망직업의 종류, 전공,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진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비교했을 때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주제어 : 진로 자기효능감, 희망직업, 진로교육, 음대생

차 례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문제
- II. 이론적 배경
 - 1. 음대생들의 진로와 음악산업
 - 2. 진로 자기효능감의 개념
 - 3.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조사도구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 4. 연구의 제한점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조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취업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된지 오래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정부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7차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2, 3 학년 일반선택 보통 교과로 ‘진로와 직업’ 과목이 편제되기 시작하였다(최동선, 2008).

이처럼 진로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등학교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청년기를 보내는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구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대학생이 되어서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더욱 절실하다(정영해 외, 2012). 실제로 최근 많은 대학들이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진로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는 진로 자기효능감이다. 진로 자기효능감은 반두라(A.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영역에 적용시킨 것으로 1981년 베티(N. Betz)와 헤케트(G. Hackett)의 연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이후 진로 자기효능감은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Betz & Hackett, 1983, 1987; Betz, Klein, & Taylor, 1996; Borgen, 1991; Solberg, Good, & Nord, 1994; 정영해 외, 2012; 강경균, 정성봉, 2007). 많은 연구 결과 진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결정, 진로 관련 행동, 혹은 여러 장애 요인 대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nt & Hackett, 1987; 이은경, 2000). 특히 이기학(1997)은 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진로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음악대학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음악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다른 전공계열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음악대

학은 본질적으로 연주가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가원, 2009). 음악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악기 연주나 작곡 등 음악 실기를 연마하며 음악가를 희망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음악 산업이 다양화 되고 많은 관련 직업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음악 관련 직업에는 다른 전공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음악 전공자들은 연주자나 개인 교습에 진로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이다(이수일, 2004). 따라서 음대생들이 보다 다양한 음악관련 직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음악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대생들에게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관련된 학생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타 전공생들과 다른 음대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로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대생들의 희망 직업과 진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이 희망직업을 포함한 관련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음대생들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음대학생들의 희망직업은 무엇인가?
- 둘째, 음대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은 희망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음대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넷째, 음대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은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음대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설정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음악과 진로’를 포함시킬 만큼 음악 교육에 있어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민경훈, 2012; 송인섭 외, 2011). 그러나 교육과정 내에서의 음악 진로 교육과는 달리 정작 진로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인 대학생 시기의 음악 진로 교육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이가원, 2006; 최시원, 1987; 정환호, 최진호, 2013)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음악과 진로, 음악과 직업, 혹은 음악과 취업을 검색 해 보면 음대생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대생의 진로 및 취업에 관련된 연구로는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정환호, 최진호(2013), 이가원(2006), 최진호, 정완규(2009), 김민정(2003), 문한중(1993)의 연구가 있다.

정환호와 최진호(2013)는 음대생들의 진로와 교과과정의 적합도에 대한 연구에서 음대 학생들이 타 계열 학생들보다 진로준비에 취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이 연주 위주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과 음대생들은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전공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p. 166).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음대 졸업생들은 제한된 직업군으로 수요 이상의 인원이 몰려 과도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진호와 정완규는(2009) 일반적으로 음대생들이 졸업 후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연주자와 음악 교육자(대학교수와 음악교사 포함)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이 직업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직업들이므로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음대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음악 산업에 눈을 돌리고 새로운 음악 직업에 관한 연구 및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음악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뜻하는 음악 산업은 현재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도로 변화, 발전 하였다. 음악 창작 및 유통, 마케팅의 방법이 변화하면서 음악 산업의 범위 또한 확장 되어 현재 음악 산업의 범위는 음반, 공연, 작곡, 출판, 저작권 관리,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방송, 광고 음악, 영화 음악 등을 아우르게 되었다(민경훈, 2012, p.346).

한국콘텐츠 진흥원의(2011) ‘음악사업백서 2011’에서는 국내의 음악 산업을 중분류 7개, 소분류 16개로 분류하였다.

<표 1> 음악 산업 분류체계(한국콘텐츠 진흥원, 2011)

중분류	소분류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배급 및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음반 복제업 음반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음반 소매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온라인 음악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음원 대리 중개업 모바일/인터넷 음악 제작 및 제공업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음악 산업이 양산되고 음악관련 직업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음대생들의 실제 진출 직업이나 희망직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진로지도가 요구된다.

2. 진로 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 자기효능감은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이론 중 하나인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영역에 적용 한 것이다. 반두라(1977)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주어진 과제와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연구되었으며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에 있어 선택, 수행, 지속성 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Betz, Klein, & Taylor, 1996).

자기효능감 이론을 처음으로 진로심리학에 적용하여 진로 자기효능감 개념을

소개한 것은 베츠와 헤케트(1981)이다. 그들은 1981년, 논문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college women and men*에서 여대생 134명과 남자 대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진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을 위한 직업 10개와 여성을 위한 직업 10개를 제시하고 이 직업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이 연구에서 베츠와 헤케트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진로 자기효능감의 성별 차이가 뚜렷함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직업적 진로 자기효능감척도(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OSES)로서 하위요인인 ‘교육요구’와 ‘직업요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Betz & Hackett, 1981, 재인용, 김성희 & 박명심, 2006).

베츠와 헤케트(1995)는 진로 자기효능감을 진로와 관련된 과제, 결정, 행동, 적응 과정 등 진로발달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 자기효능감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솔버그와 굿, 노드(Solberg, Good, & Nord, 1994)는 유사한 개념인 진로탐색 자기효능감(career search efficacy)을 진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갖는 자신감 정도라고 정의하였다(p. 112).

3.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자기효능감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는 테일러와 베츠(Taylor & Betz, 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이다. CDMSE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일러와 베츠는 이 척도의 하위영역을 크라잇스(Crites, 1978)의 진로성숙이론(Crites’ theory of career maturity)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요인, 즉 목표선택(goal selection), 직업정보 수집(occupational information),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미래계획(planning), 자기평가(self-appraisal)로 구성하였다(Betz, Klein, & Taylor, 1996). 기존의 척도들이 수학이나 과학 등 특정 과제에 국한된 진로 자기효능감을 측정 하였던 것과는 달리 CDMSE는 일반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Taylor & Betz, 1983).

CDMSE는 개발 이후 진로 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 척도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상적인 조사도구로서는 약간 길다는 단점이 있었다(Betz, Klein, & Taylor, 1996). 이 같은 필요에 의해 개발한 것이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CDMSE-SF)이다. CDMSE-SF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이나 내용은 CDMSE와 동일하다. 단지 본래 다섯 가지 하위요인에 각각 열 문항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다섯 문항씩으로 줄여 총 25 문항의 짧은 척도를 개발하였다(Betz, Klein & Taylor, 1996). CDMSE-SF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기학과 이학주(2000)에 의해 번안, 타당화 되고 이은진(2001)에 의해 번안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성희, 박명심, 2006).

그러나 CDMSE나 CDMSE-SF의 한계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성인의 진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Solberg, Good, & Nord, 1994). 이러한 필요성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가 솔베르그(Solberg et al., 1991) 등이 개발한 진로탐구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Search Efficacy Scale: CSES)이다. CSES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SES의 구성은 네 개의 하위요인인 직업 탐색(Job Exploration), 면접(Interviewing), 인맥관리(Networking), 개인적 탐색 자기효능감(Personal Exploration Efficacy)으로 이루어져 있다(Solberg, Good & Nord, 1994).

그 외에 ‘진로선택 확신성’과 ‘진로 결정 정도’를 하위영역으로 구성한 오시포우(Osipow, 1987)의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가 있으며(김성희, 박명심, 2006, 재인용) 루니와 오시포우(Rooney & Osipow, 1992)의 Task-Specific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TSOSS) 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3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36명이다. 연구대상의 학년분포는 1학년이 29%(n=99), 2학년이 27.5%(n=92), 3학년이 25.4%(n=85), 4학년이 17.4%(n=58)이다. 연구 대상의 전공 별 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전공별 비율

전공	n	%
관악	48	14.3
성악	60	17.9
작곡	91	27.1
타악기	5	1.5
피아노	61	18.2
현악	71	21.1
합계	336	100.0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 자기효능감 검사지는 Taylor와 Betz(1983)가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이며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하위영역인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다섯 개의 영역에 각 다섯 개씩의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문항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2 이다. <표 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 해당되는 문항과 신뢰도이다. 검사지 마지막에 연구대상의 전공과 학년 등 일반적 배경과 희망직업을 묻는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 하였다.

<표 3> 진로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Cronbach α)
자기평가	5	.752
직업정보수집	5	.613
목표설정	5	.648
계획수립	5	.622
문제해결	5	.730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교나 교·강사의 협조로 강의 시간에 배부하고 현장수거 하였다. 수거 된 설문의 결과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다. 진로 자기효능감 조사 결과는 평균

(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구하고 각 변인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자기효능감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별, 학년, 전공을 변인으로 하였으나(박중길, 2006; 이기학, 이학주, 2000; 김명옥, 박영숙, 2012) 본 연구에서는 음대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성별을 제외하고 희망직업, 학년, 전공을 변인으로 하였다.

희망직업에 대한 문항은 보기를 주고 선택하게 하는 선택형 문항보다는 연구대상의 희망직업을 보다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서술형 문항으로 질문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들이 응답으로 나타났다. 서술된 희망직업들은 코딩(coding)한 후 같은 종류라고 판단되는 직업들을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총 8개의 직업군에 해당되는 응답 수를 측정하여 양적 자료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빈도분석 하였다. <표 4>는 희망직업에 대한 응답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희망직업에 대한 응답의 분류

전공에 따른 분류	직업군 (Category)	해당 응답(희망직업)
음악 전공 직업	연주자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등 솔로 연주자
	음악교사	뮤지컬 가수, 작곡가, 연주자 및 대학교수
	음악단체 단원	초, 중등 음악교사
	음악감독	오케스트라, 오페라단, 합창단 단원
	음악관련직	양상블 창단 후 감독, 뮤지컬 연출가, 음악 단체 감독
타전공 직업	음악관련직	음악기획자, 음향기술자, 악기 관련 직업, 음악치료사, 찬양 선교사
	레슨교사	개인레슨, 학원 운영
미정	비 음악관련직	공무원, 패션 디자이너, 회사원
미정	미정	모른다, 미정 등의 응답

희망직업에 대한 응답을 분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 중 음악전공이 진출할 수 있는 음악전공 직업과 일반적으로 타 전공자들이 진출하는 직업을 분류하였다. 또한 미정(모른다)이라는 응답(n=15)도 따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음악전공 직업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직업이라 판단되는 응답들을 분류하여(grouping) 6개의 직업군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등 전문 솔로 연주자에 해당되는 응답은 ‘연주자’ 그룹으로, 초·중등 음악교

사는 ‘음악교사’로 분류하였다. ‘레슨 교사’에 해당되는 응답은 같은 음악 교육자이기는 하지만 직업으로서 진출 경로나 교육 내용이 다르므로 ‘음악교사’와 분리하였다. 응답들 중 크게는 연주자로 볼 수 있으나 오케스트라 단원, 합창단 단원 또는 음악감독, 앙상블 창단 후 감독이라고 명시한 응답들이 있었다. 이 응답들은 독주자를 의미하는 ‘연주자’ 그룹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 수가 적지 않으므로 ‘연주자’와 구분하여 각각 ‘음악단체 단원’, ‘음악감독’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이와 같이 총 8개의 그룹(음악전공 직업군 6개, 비음악전공 직업군 1개, 희망직업이 미정인 그룹 1개)으로 희망직업 응답을 분류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음악 대학의 전공은 크게 관현악과, 건반음악과, 작곡과, 성악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전공별 차이 분석을 위하여 관악 전공과 현악 전공을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타악기 전공(n=5)은 본래 음대에서 관현악과 소속이지만 현악 전공이나 관악 전공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타악기 전공’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5명인 타악기 전공은 다른 전공 집단에 비해 연구 대상의 수가 매우 적으므로 타 전공과의 객관적인 비교나 일반화가 어려움을 밝힌다.

IV. 연구결과

1. 음대생들의 희망직업

연구대상의 희망직업에 대한 서술형 문항의 응답으로는 ‘연주자’가 35.13%(n=98)로 가장 많았다. ‘연주자’로 분류한 응답에는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솔로 연주자와 뮤지컬 가수, 작곡가 등의 응답도 포함하였으며 연주자 및 교수라고 한 응답도 포함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초·중등학교 음악선생님인 ‘음악교사’라는 응답이 16.13%(n=45)로 많았다. 희망직업이 오케스트라 단원, 오페라 단원, 합창단 단원인 응답들은 ‘음악단체 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14.69%(n=41)의 응답률을 보였다. ‘음악 감독’으로 분류한 응답은 8.60%(n=24)로서 앙상블 창단, 뮤지컬 연출 등의 응답도 ‘음악감독’ 그룹에 포함하였다. ‘음악관

련직'으로 구분한 응답은 7.53%(n=21)로 음악회기획자, 음향기술자, 악기관련 직업, 음악치료사, 찬양 선교사 등의 응답이 포함되었다. '비음악관련직'으로 구분한 응답은 7.52%(n=21)로 공무원, 패션 디자이너, 회사원, 여장교 등의 응답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미정'이란 응답이 5.38%(n=15), 레슨 선생님, 또는 학원 운영 등의 응답을 포함하는 '레슨 교사'란 응답이 5.02%(n=14)로 나타났다.

<표 5> 음대생들의 희망직업

직업	N	비율(%)
연주자	98	35.13
음악교사	45	16.13
음악단체 단원	41	14.69
음악 관련직	21	7.53
비음악 관련직	21	7.52
음악감독	24	8.60
미정	15	5.38
레슨 교사	14	5.02
합계	279	100

2.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

1) 희망직업에 따른 전체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

<표 6>은 음대생의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각 직업 그룹별로 진로 자기효능감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직업은 비음악 관련직으로서 평균 3.4778(SD=.54786) 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진로 자기효능감을 보여 준 직업은 음악 감독(M=3.3934, SD=.3664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교사(M=3.3898, SD=.43188), 레슨교사(M=3.2943, SD=.35094), 연주자(M=3.2557, SD=.41562), 악단 단원(M=3.2200, SD=.33627), 음악 관련직(M=3.1978, SD=.55204)의 순이었다. 희망직업을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은 3.1333으로 가장 낮았다(SD=.40961). 이들 간의 유의확률은 0.080으로 희망직업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

직업	N	평균 (Mean)	표준편차 (SD)	F	유의 확률
비음악 관련직	21	3.4778	.54786	1.837	.080
음악감독	24	3.3934	.36646		
음악교사	45	3.3898	.43188		
레슨교사	14	3.2943	.35094		
연주자	98	3.2557	.41562		
악단단원	41	3.2200	.33627		
음악 관련직	21	3.1978	.55204		
미정	15	3.1333	.40961		
합계	279	3.2916	.42802		

2)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

<표 7>은 학생들의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희망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p<0.05$) 하위요인은 ‘직업정보수집’($p=.019$), ‘목표설정’($p=.001$)과 ‘계획수립’($p=.009$)이었다. ‘직업정보수집’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 평균을 보인 그룹은 음악교사($M=3.5333$, $SD=.54772$)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음악관련직($M=3.5143$, $SD=.54616$), 악단단원($M=3.3890$, $SD=.49289$), 연주자($M=3.3041$, $SD=.56366$), 음악감독($M=3.2333$, $SD=.55220$), 레슨교사($M=3.2286$, $SD=.33150$), 음악관련직($M=3.1333$, $SD=.75189$), 미정($M=3.0267$, $SD=.61350$) 순이었다.

‘목표설정’의 경우 높은 평균을 보인 순서대로 살펴보면, 비음악 관련직($M=3.5524$, $SD=.5437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연주자($M=3.5388$, $SD=.58391$), 음악교사($M=3.5200$, $SD=.60962$), 음악감독($M=3.5000$, $SD=.55639$), 레슨교사($M=3.4143$, $SD=.52894$), 악단단원($M=3.3951$, $SD=.49495$), 음악 관련직($M=3.2095$, $SD=.58130$), 미정($M=2.8533$, $SD=.44379$)이었다.

‘계획수립’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직업은 비음악 관련직($M=3.3048$, $SD=.77102$)이며 다음으로는 순서대로 음악감독($M=3.1167$, $SD=.57458$), 미정($M=3.0267$, $SD=.48912$), 음악 관련직($M=3.0000$, $SD=.79750$), 음악교사($M=2.9467$, $SD=.57746$), 레슨교사($M=2.9286$, $SD=.64023$), 연주자($M=2.8163$, $SD=.28163$), 악단단원($M=2.7061$, $SD=.51432$)순이었다.

전체 진로 자기효능감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비음악 관련직 희망자들이 하위영역별 검정에서도 역시 높은 평균을 나타내어 ‘직업정보수집’을 제외한 모든 하

위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직업정보수집’영역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표 7>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

하위요인	희망직업	N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자기평가	비음악 관련직	21	3.7524	.61288	1.555	.149
	레슨교사	14	3.5714	.52540		
	음악교사	45	3.5689	.60296		
	연주자	98	3.5367	.55953		
	음악감독	24	3.5333	.53297		
	음악 관련직	21	3.4667	.58080		
	악단단원	41	3.3561	.44612		
	미정	15	3.2667	.67893		
직업정보 수집	음악교사	45	3.5333	.54772	2.441	.019
	비음악 관련직	21	3.5143	.54616		
	악단단원	41	3.3890	.49289		
	연주자	98	3.3041	.56366		
	음악감독	24	3.2333	.55220		
	레슨교사	14	3.2286	.33150		
	음악 관련직	21	3.1333	.75189		
	미정	15	3.0267	.61350		
목표설정	비음악 관련직	21	3.5524	.54371	3.608	.001
	연주자	98	3.5388	.58391		
	음악교사	45	3.5200	.60962		
	음악감독	24	3.5000	.55639		
	레슨교사	14	3.4143	.52894		
	악단단원	41	3.3951	.49495		
	음악 관련직	21	3.2095	.58130		
	미정	15	2.8533	.44379		
계획수립	비음악 관련직	21	3.3048	.77102	2.760	.009
	음악감독	24	3.1167	.57458		
	미정	15	3.0267	.48912		
	음악 관련직	21	3.0000	.79750		
	음악교사	45	2.9467	.57746		
	레슨교사	14	2.9286	.64023		
	연주자	98	2.8163	.61101		
	악단단원	41	2.7061	.51432		
문제해결	비음악 관련직	21	3.3619	.88231	1.507	.165
	음악감독	24	3.3521	.46426		
	음악교사	45	3.1600	.70013		
	음악 관련직	21	3.1429	.59714		
	연주자	98	3.1224	.64832		
	악단단원	41	3.0683	.47246		
	미정	15	2.8933	.65407		
	레슨교사	14	2.8857	.44869		

3. 전공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

1) 전공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표 8>은 전공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차이검정결과이다. 자기효능감 평균을 살펴보면 성악과(M=3.3588, SD=.44754)가 가장 높았으며 피아노과(M=3.3174, SD=.44443), 현악과(M=3.2811, SD=.43343), 관악과(M=3.1919, SD=.35515), 작곡과(M=3.1817, SD=.43419), 타악기(M=3.0467, SD=.24788) 순이었다. 그러나 전공별 자기효능감의 유의확률은 .077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 전공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성악	60	3.3588	.44754	2.007	.077
피아노	60	3.3174	.44443		
현악	71	3.2811	.43343		
관악	48	3.1919	.35515		
작곡	91	3.1817	.43419		
타악기	5	3.0467	.24788		
합계	335	3.2582	.42940		

2)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

<표 9>는 전공에 따른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이다. 다섯 가지 하위요인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p < 0.05$) ‘자기평가’($p = .39$)와 ‘문제해결’($p = .38$)요인이었다. ‘자기평가’ 영역에서 진로 자기효능감의 평균을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피아노(M=3.6400, SD=.53336), 성악(M=3.5300, SD=.60499), 현악(M=3.4451, SD=.57191), 작곡(M=3.4066, SD=.61568), 관악(M=3.3042, SD=.45754), 타악기(M=3.2800, SD=.50200) 순이었다.

‘문제해결’영역에서는 성악과(M=3.3033, SD=.64885)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악(M=3.1127, SD=.60543), 관악(M=3.0708, SD=.55580), 피아노(M=3.0617, SD=.67826), 작곡(M=2.9599, SD=.63119), 타악기(M=2.8400, SD=.53666) 전공 순이었다.

나머지 요인들 중 ‘목표설정’($p = .468$), ‘직업정보수집’($p = .152$), ‘계획수립’($p = .104$), ‘문제해결’($p = .038$)에서는 전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표 9> 전공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

하위요인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기평가	피아노	60	3.6400	.53336	2.376	.039
	성악	60	3.5300	.60599		
	현악	71	3.4451	.57191		
	작곡	91	3.4066	.61568		
	관악	48	3.3042	.45754		
	타악기	5	3.2800	.50200		
직업정보수집	현악	71	3.3803	.55873	1.628	.152
	성악	60	3.3633	.58858		
	피아노	60	3.3442	.52166		
	관악	48	3.3406	.49062		
	타악기	5	3.2400	.32863		
	작곡	91	3.1626	.63239		
목표설정	성악	60	3.4533	.65651	.920	.468
	현악	71	3.4282	.55989		
	피아노	60	3.3800	.53704		
	관악	48	3.3792	.44672		
	작곡	91	3.3297	.66758		
	타악기	5	2.9600	.26077		
계획수립	성악	60	3.0967	.68047	1.842	.104
	피아노	60	2.9133	.66319		
	현악	71	2.8782	.55637		
	작곡	91	2.8418	.60628		
	관악	48	2.8250	.57999		
	타악기	5	2.5600	.69857		
문제해결	성악	60	3.3033	.64885	2.385	.038
	현악	71	3.1127	.60543		
	관악	48	3.0708	.55580		
	피아노	60	3.0617	.67826		
	작곡	91	2.9599	.63119		
	타악기	5	2.8400	.53666		

4.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1) 학년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표 10>은 학년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확률 0.154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학년은 2학년($M=3.3411$, $SD=.4275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3학년($M=3.2557$, $SD=.43174$), 4학년($M=3.2134$, $SD=.52440$), 1학년($M=3.2107$, $SD=.35972$) 순이었다.

<표 10> 학년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전체의 차이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1학년	99	3.2107	.35972	2.763	.154
2학년	92	3.3411	.42757		
3학년	84	3.2557	.43174		
4학년	58	3.2134	.52440		
합계	333	3.2586	.43017		

2)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

<표 11>은 학년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다섯 가지 하위요인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문제해결’ 요인이었다($p=.040$). 문제해결에서는 2학년이 가장 높은 평균($M=3.2190$, $SD=.63340$)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3학년($M=3.1071$, $SD=.66979$), 4학년($M=3.0724$, $SD=.64748$), 1학년($M=2.9566$, $SD=.57697$) 순이었다.

나머지 요인들인 ‘자기평가’($p=.855$), ‘직업정보수집’($p=.775$), ‘목표설정’($p=.968$), ‘계획수립’($p=0.125$)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표 11> 학년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

하위 요인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자기 평가	1	99	3.4202	.52098	.259	.855
	2	92	3.4848	.57511		
	3	84	3.4833	.62263		
	4	58	3.4586	.60525		
직업 정보 수집	1	99	3.2566	.52297	.369	.775
	2	92	3.3082	.51937		
	3	84	3.3411	.56686		
	4	58	3.3241	.72337		
목 표 설 정	1	99	3.3636	.54087	.086	.968
	2	92	3.3913	.62611		
	3	84	3.3762	.55311		
	4	58	3.4103	.67374		
계 획 수 립	1	99	2.8364	.54985	1.930	.125
	2	92	3.0022	.57684		
	3	84	2.9375	.68472		
	4	58	2.7862	.69974		
문 제 해 결	1	99	2.9566	.57697	2.807	.040*
	2	92	3.2190	.63340		
	3	84	3.1071	.66979		
	4	58	3.0724	.64748		

* $p<0.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음대생(n=336)을 대상으로 진로 자기효능감과 희망직업을 조사하였으며 차이검증을 통하여 대상의 희망직업, 학년, 전공에 따라 진로 자기효능감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망한 직업은 연주자였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 교사, 악단 단원, 음악 감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음악 관련직(음악 기획, 음향 관련직, 음악치료사 등), 비음악 관련직(패션 디자이너, 기업 취직 등) 등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레슨교사를 희망하거나 아직 희망직업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문연주자가 되기 매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음대 학생들은 연주자가 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대 학생들이 실제로 졸업 후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악학원 강사나 개인레슨강사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희망직업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 전체 평균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별로 살펴 본 결과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 개의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직업군은 비음악 관련직(목표설정, 계획수립 영역)과 음악교사(직업정보수집)였으며 가장 낮은 평균은 희망직업을 모르는 학생들(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영역)과 악단단원(계획수립영역)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하여 연주자나 악단단원을 희망하는 음대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보다는 음악과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초·중등 음악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진로에 대한 확실성 수준이 높으며 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전경애, 2004; 이연미, 2001; 한주옥, 2004)에서도 예측할 수 있었듯이 희망직업을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전공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결과 전체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하위요인 중 자기평가와 문제해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평가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전공은 피아노과였으며 문제해결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은 성악과였다.

넷째, 학년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점수의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하위영역 중 문제해결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제해결에 관련된 자기효능감 평균은 높은 순서대로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이었다. 문제해결에 관한 진로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이 1학년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2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진로 자기효능감이 낮아져 막상 졸업을 앞둔 4학년에서 2, 3 학년보다 낮은 평균을 보인다는 결과는 대학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에 관련 된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로지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들을 종합하여 음악대학의 진로교육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대다수 음대생들의 희망직업은 연주자와 교육자에 국한되어있음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직업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직업들이므로 음악 산업과 음악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종에 대한 소개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주자 양성 위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현대의 음악 관련 직업들이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하려는 음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음대생들의 진로교육에서 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진로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은 희망직업, 전공, 학년에 따라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음대생 진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희망직업의 경우 연주자를 희망한 학생들보다 음악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을 희망한 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가장 많은 음대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연주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음대의 진로교육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으며 언어적 설득을 통해서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음대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한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대생들의 진로 관련 고민을 나누고 진로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개별적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음대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음대생들에게 보다 나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 음대 진로교육의 실태, 음대생들의 진로관련 의식, 음대의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 및 음대를 위해 특성화 된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균, 정성봉 (2007). 중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학 회지**, 7(3), 171-189.
- 김명옥,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김민정 (2003). 음악 대학생의 진로를 위한 교수 지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 박명심 (2006). 고등학생용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 학연구**, 7(2), 385-397.
- 박중길 (2006).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7(3), 47-60
- 문한중 (1993). 음악전공자들의 취업현황 및 직업만족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원 (2006). 취업지도를 위한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 연구: 바이올린 연주전공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31, 87-117.
- 이가원 (2009). 대학의 음악산업 프로그램 중 음악경영과 음향제작 전공 교과과정 개발. **음악교육공학**, 9, 115-131.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자아 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 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연미 (2001).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일 (2004). 전문대학 실용음악 혹은 대중음악 전공자의 직업 능력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공학**, 3(1), 61-74.
- 전경애 (200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

- 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혜, 강희순, 김정숙 (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 여부,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개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22 (1), 71-88.
- 정환호, 최진호 (201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음악교육연구**, 42(2), 161-183.
- 최동선 외 (2008). 진로교육정책의 성과와 추진방향. 서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최시원 (1987). 대학에서의 전문 음악교육의 제문제. **연세교육과학**, 31, 65-82.
- 최진호, 정완규 (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 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etz, N. E., & Hackett, G.(1983). The relationship of career self-efficacy expectation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etz, N. E., Klein, K.,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orgen, F. H. (1991). Mega-trends and milestones in vocational behavior: A 20 years counseling psychology retro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263-290.
- Hackett, G., & Betz, N. E. (1987).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and use manual*. Monterey, CA: CTB/McGraw Hill.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47-382.

- Osipow, S. H. (1987).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oney, R. A., & Osipow, S. H. (1992). Task-specific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rototyp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14-32.
- Solberg, V. S., Good, G., & Nord, D. (1991). Career efficacy scale for research and practi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99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Solberg, V. et al. (1994). Assessing Career Search Expectation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Search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2, no. 2. p.111-123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Wishing Jobs of Music Major College
Students**

Chu, Hee-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for the career education of music major college students by investigating their career self-efficacy and the jobs they want for the futur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36 music major college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CDMSE-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if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areer self-efficacy of different future jobs, majors, and grades. The results represented that most of the music major students(total 66%) want to be performing artists(including member of musical groups and music director) and the rest of the students want to be a music teacher, officer in musical industry, etc.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reer self-efficacy according to students' major, grade, and the jobs they want. However,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categories of career self-efficac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categories, job information search, future plans, and selecting goals according to the jobs they wa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category, problem solving according to the students' grade, and in problem solving and self appraisal according to the students' major.

key words : career self-efficacy, self- efficacy, career education, career, vocation

투고일: 2013년 8월 31일, 심사(수정): 9월 27일(10월 20일), 게재확정일: 11월 9일